

순천만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농장 습지로 복원

농장주·농민들 AI 사전예방 위해 이례적 복원 요청
환경부, 교량동·별량면 26만8000㎡ 개선지역 지정

순천만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농장이 습지로 복원된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 3개소를 포함한 인근 농경지를 습지보전법 제 8조에 따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했다.
습지개선지역은 기존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인위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순천시는 앞서 농장주와 농민들의 의사에 따라 순천만 인접 동천하구(5394㎢, 2015년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주변 교량동과 별량면 일원(26만8000㎡)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이번 동천하구 인근 습지개선지역 지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순천 탐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 농장주와 농민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 가금농장 철거 의사를 순천시에 밝혀 지정했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농장 철거를 희망한 농장주는

농장 철거에 따른 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장 철거를 희망한 농장은 조정운(65)씨 등 모두 3곳으로 면적은 1만1395㎡에 이른다.
습지 보전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주민이 먼저 농장 철거 의사를 밝히고 습지 복원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시는 앞으로 습지의 훼손을 막고 상시적인 고병원성 AI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 이번에 지정된 동천하구 습지개선지역을 단계적으로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순천만관리센터 관계자는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가금농장과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서 새들의 먹이터가 사라지고 AI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경계관리 강화 및 자연 생태 보전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AI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년 10월부



순천만을 찾은 철새들. 순천시는 앞으로 습지의 훼손을 막고 상시적인 고병원성 AI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에 지정된 동천하구 습지개선지역을 단계적으로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터 소독매트, 자외선소독기 설치, 현장에 잘 강화, 탐방로 소독, 철새도래지 진입차단과 안내간판 설치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2018 한국-중국-일본-호주 간 철새양자회의’에 철새와 그 서식지 보전 우수 지자체로 초청됐으며, 전체회의에서 ‘순천의

철새 서식지 보전과 AI 관리 대책’을 발표해 국내외 조류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내년 국고 4333억 확보...현안사업 추진 탄력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등 박차

순천시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올해(4231억원) 보다 102억원이 늘어난 4333억원의 국고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현안사업 33건 35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62건 382억원, 국가직접시행사업 697억원, 복지과 농업 등 연례 반복사업 2897억원 등을 포함해 총 4333억원이다.

국회 증액사업은 총 4건 61억원으로 이중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7기 공약이다. 이 사업은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후 슬럼화가 심한 승주읍 소재 옛 승주군청 부지에 남해안권의 유기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100억원 중 용역비와 설계비 6억원이 국비로 반영됐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이번에 철도기본계획수립비 10억원이 반영돼 지난 1930년 건설된 후 88년만에 철도 현대화에 착수하게 됐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3억원을 비롯해 수출형 기계부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19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건 167억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관리비 40억원 등이다. 재난재해예방사업은 주암 용존전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원이 반영돼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사업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 12억원, 제2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3억원, 낙안-상사 간 국지도 시설개량 10억원 등이다.
또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계획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4개소 10억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3개소 9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이 외 국가직접시행사업으로 주암댐 도

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400억원,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33억원, 호국공원 조성사업 43억원, 벌교-주암간 3공구 국도4차로 확장사업 75억원, 화산 동면-순천 주암 간 국도 시설개량 60억원 등도 반영돼 대형 SOC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고 확보로 민선 7기 공약 및 현안사업 이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도 국고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고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전남 지자체 첫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사례집 발간

사업 10년 맞아 발간 기념회
가슴 뭉클한 스토리 등 담겨



습도우미 선생님의 사례발표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다문화가정 대표 안민호씨는 “학습도우미 선생님이 처음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아이와 아내가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 선생님을 따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 고맙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가정 각국 대표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학교생활은 물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던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부모를 돕고자 시작한 사업이 10년째 맞아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 사업에 큰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정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전남 최초로 발간한 사례집에는 학습도우미 선생들의 크고 작은 28건의 이야기와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슴 뭉클한 23건의 감동 스토리가 담겨있다.
이날 행사는 보니양상블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 학

순천문화재단 내년 상반기 출범 속도 낸다

2년여만에 이사진 구성 나서

순천시가 지난 2016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을 추진했던 순천문화재단이 2년여 만에 이사진 구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0월 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이사진 구성을 위한 심사 평가 방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순천문화재단 임원 14명(이사 13명·감사 1명) 공개 모집 결과, 55명이 응모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에는 지역의 교수와 예술인, 언론인

들을 비롯해 광주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인사도 지원했다.
순천시는 심사를 거쳐 13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 2년의 이사는 무보수며 상임이사는 월 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원된다. 사무국은 5급 상당의 사무국장 1명과 6급 상당의 팀장 3명, 팀원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진이 꾸러지면 창립총회를 열어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남도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은 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립청소년교향악단
발레 ‘호두까기 인형’
15·16일 정기연주회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9회 정기연주회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호두까기 인형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명작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정상급 무용수들과 순천시의발레 꿈나무들이 함께 출연해 작년 라트비아아트 전막 공연을 무대에 올린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선율에 맞춰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은 만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권은 티켓링크 또는 문화예술회관 방문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 가족세대, 다문화가족, 3자녀이상증 소지자,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증 소지자, 순천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 초·중·고교생, 30인 이상 단체 등에게는 50% 할인된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